

HI Economy

허리케인 어마, 하비와 따로 보지말자

■ 위력 점차 약화되고 있는 허리케인 어마, 한숨 돌렸다

허리케인 하비(Harvey)에 이어 어마(Irma)가 플로리다 지역을 강타했다. 허리케인 어마는 대서양에서 발생한 역대 최강급으로 알려져 있어 그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컸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인구 2,000만명 중 650만명에게 대피령을 발령할 정도로 허리케인 어마에 대한 공포는 높았다.

하지만 허리케인 어마에 대한 공포는 오래가지 않았다. 허리케인 어마는 쿠바에 먼저 상륙한 이후 카테고리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위력이 약해졌고 그 이후 열대성 저기압으로 위력이 더 약화되었다. 게다가 플로리다 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플로리다 동쪽 해안으로 상륙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플로리다 반도 서쪽 해안으로 움직였다.

이에 FT, 블룸버그는 어마로 인한 예상 피해액이 최대 약 2,000억 달러였으나 500억 달러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다고 밝혔다. 피해규모가 예상보다 작은 가운데 지난 8.31일자 보고서 '허리케인 하비, 병주고 약주냐'에서 언급한 것처럼 허리케인 하비와 마찬가지로 어마는 미국 3Q GDP 성장률 둔화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고 4Q에는 피해복구수요 등으로 경제성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허리케인 어마, 하비 영향과는 약간 다를 뿐 전체적으로 비슷

허리케인 어마는 산업생산이나 제조업 생산 지표를 제외하고는 허리케인 하비가 실물지표에 미칠 영향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하비와 카트리니가 강타했던 텍사스 지역과 어마가 상륙한 플로리다 지역은 주력 산업이 다르기 때문이다. 허리케인으로 인해 텍사스 지역에서는 정유업 등 제조업에 대한 우려가 컸던 반면 플로리다 지역에서는 관광산업과 농업을 포함한 1차산업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휘발유, 오렌지 주스 가격의 변동성 확대이다. 허리케인 하비에 대한 피해로 정유 공장들은 가동이 중단되었고 이에 휘발유 수급

Economist

진용재

(2122-9206)

yj@hi-ib.com

Chief Economist

박상현

(2122-9196)

shpark@hi-ib.com

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휘발유 가격은 일일 최대 13.5% 급등했다. 반면 미국내 최대, 세계 2위의 오렌지 산지인 플로리다에 허리케인 어마가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자 오렌지 주스 가격은 일일 최대 6.2%까지 급등했다.

소매판매, 자동차 판매, 고용지표 등에는 하비와 비슷하게 일시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 다만 허리케인 어마로 인한 피해와 하비로 인한 악영향이 합산되기 때문에 카트리나가 미국을 강타 했을 때보다 지표가 더 부진할 여지가 있다.

여타 실물지표와는 다르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주별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하비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다. 최근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전주대비 6.2만 명 증가해 카트리나 당시(6.6만명 증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번 허리케인 어마의 영향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플로리다의 실업률은 4.1%로 미국 전체 실업률을 하회하고 있는데 이번 어마로 인해 플로리다의 실업률이 상승한다면 아무래도 전체 실업률에 부정적 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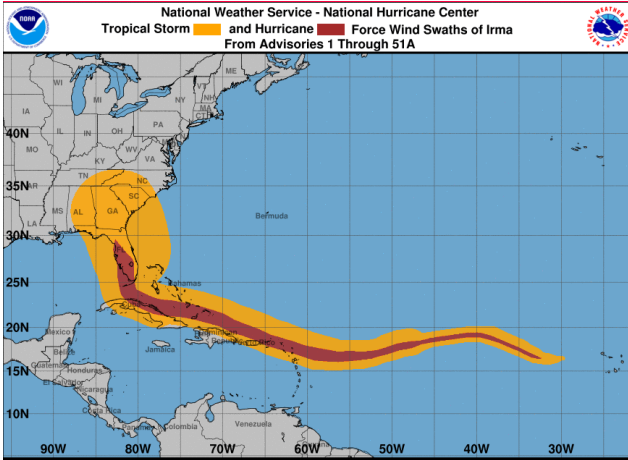
■ 미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 낮지만 완전히 외면하지는 말자

허리케인의 악영향이 미연준의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낮추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은 그나마 12월이 가장 높은데 38.9%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허리케인으로 인해 지표들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고용부분에서 미연준의 자신감이 흠집 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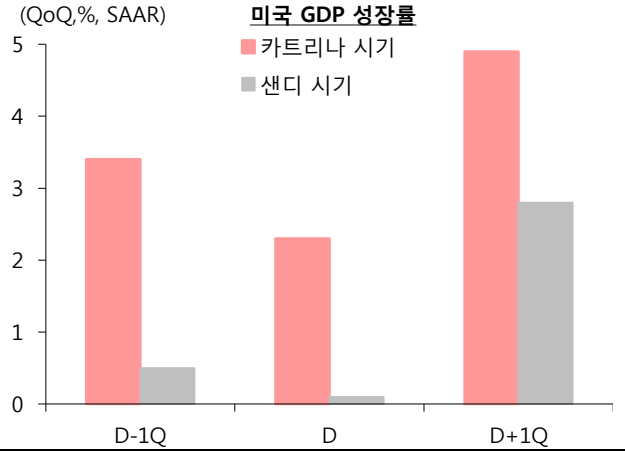
하지만 허리케인으로 인해 미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아예 없다고 방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허리케인으로 인한 경기지표 부진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것을 미연준 인사들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허리케인 하비와 어마의 영향이 합해지는 만큼 피해복구 수요도 이전 허리케인보다 더 크게 확대되어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면 미연준 인사들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도 함께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이번 하비와 어마의 합산 피해규모가 카트리나 시기보다 더 클 수 있고 피해지역도 넓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플로리다 내 농업의 피해는 식품 물가를 상승 시킬 수 있으며 이는 역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 가능하다. 즉, 물가적인 측면을 감안시 향후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현수준보다 높아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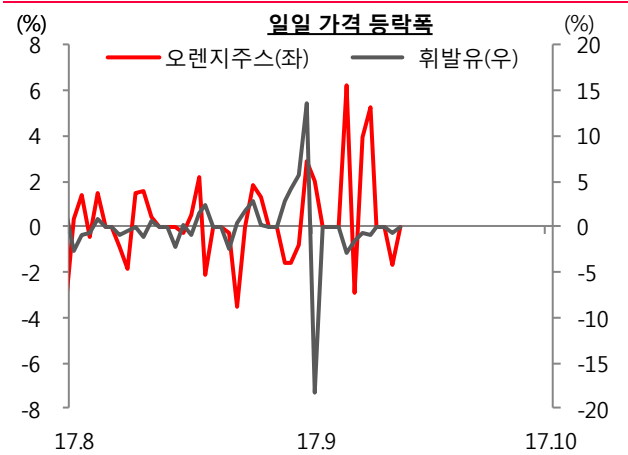
<그림 1> 허리케인 어마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위력이 약화되었고 플로리다 서쪽 해안을 강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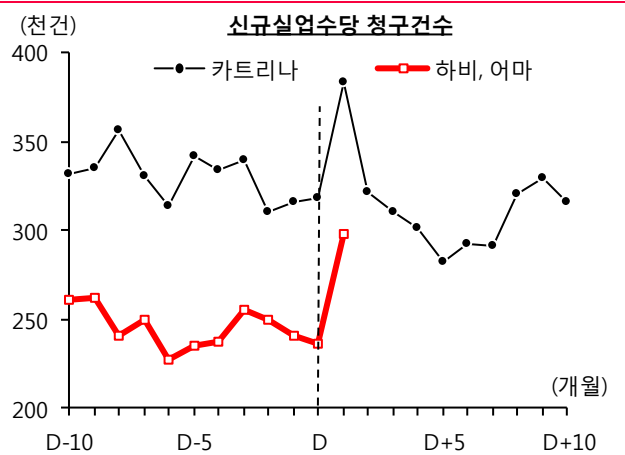
<그림 2> 미국 경제는 허리케인 피해 이후 다음 분기에 회복구 수요 등으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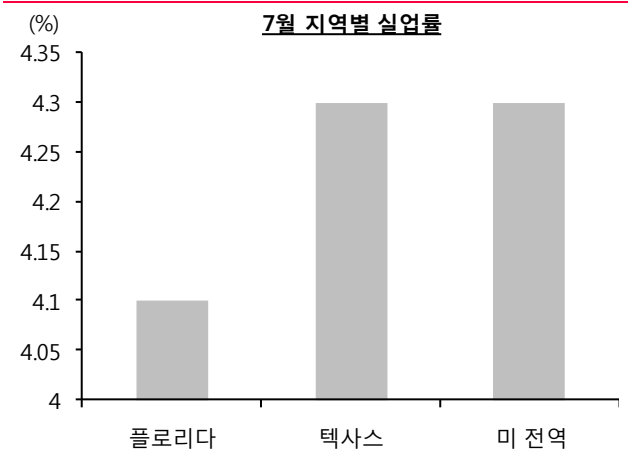
<그림 3> 허리케인 하비 때는 휘발유 가격변동성이, 어마 때는 오렌지주스 가격변동성이 확대



<그림 4>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이미 지난주 하비의 영향을 반영했고 이는 카트리나와 비슷한 수준



<그림 5> 플로리다의 실업률은 미국 실업률을 하회하는데 이번 어마 영향으로 악화될 여지가 있음



<그림 6> 허리케인으로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아 지고 있는데 완전히 외면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



자료: Bloomberg, BLS, NOAA, BEA, 하이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진용재, 박상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